

2021.5.10

창작노트 DAY-1

지구온난화

북극곰이 요즘 힘들다며?

- 응. 지구온난화때문에

아, 뭘 자주왔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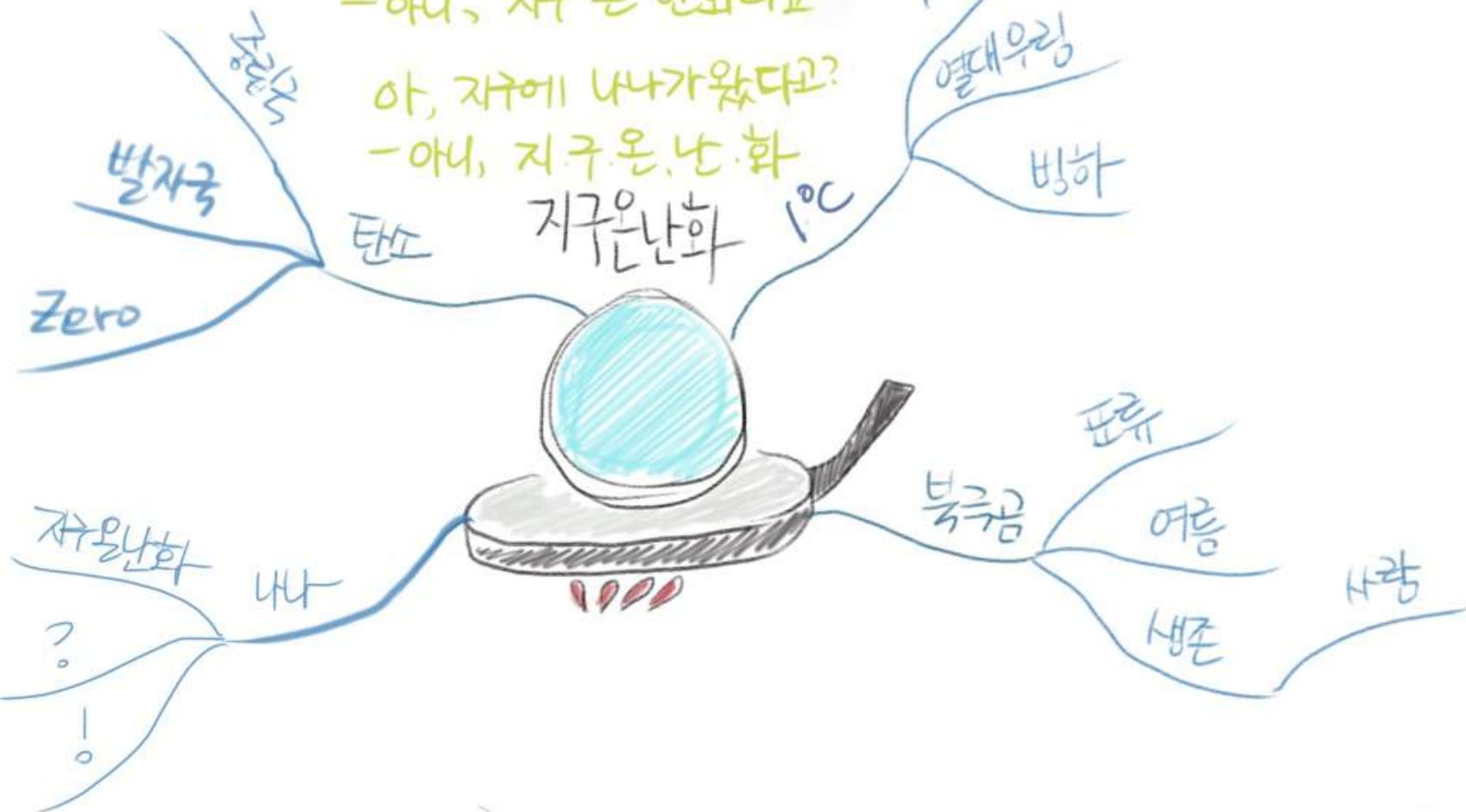
- 아니, 지구 온난화라고

아, 지구에 나나가왔다고?

- 아니,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1°C



초대장

-김보람

벚꽃과 바톤터치한

소나무가

저멀리산에서

연노랑빛 꽃가루를

자동차 위에

창문 틈에

고인 벗물에

살짝 뿌려놓고갔다

초대장

송화가루

봄

당번

분필

수영

자동차 페인트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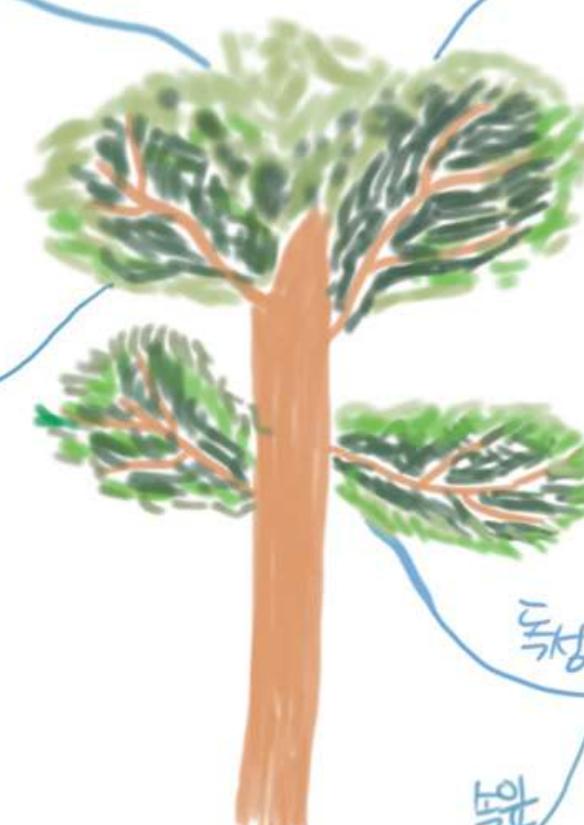
대

송전
차운

'이제 내꽃보러오세요'

차운

기암
장작
떡
송화가루
고마
술
장승
보호



하늘
독성
드풀
풀
뿌리
성장X
어린나무

Day2, 소나무

2021. 5. 15 BR 창작반

Day 3. 창작노트

A hand-drawn diagram of a brain cross-section, likely a cerebellum, with various regions labeled in Korean:

- Posterior parahippocampal gyrus
- Posterior hippocampus
- Dentate gyrus
- Perirhinal cortex
- Entorhinal cortex
- Subiculum
- Striatum
- Medial septal nucleus
- Anterior thalamic nuclei
- Posterior thalamic nuclei
- Posterior limb of internal capsule
- Optic radiations
- Optic chiasm
- Optic nerve
- Optic disc
- Optic tract
- Optic radiations
- Optic chiasm
- Optic nerve
- Optic disc
- Optic tract
- Posterior limb of internal capsule
- Anterior thalamic nuclei
- Medial septal nucleus
- Striatum
- Subiculum
- Entorhinal cortex
- Perirhinal cortex
- Dentate gyrus
- Posterior hippocampus
- Posterior parahippocampal gyrus

왜! 어떻게 나왔지?
신기해하는 나를 보고
옆에 있던 호미가 빙그레웃는다.

A hand-drawn map of South Korea with several regions labeled in Korean:

- Top left: 그려진 어날 (Hand-drawn yesterday)
- Top center: 흙을 뚫고, 더 달을 뚫고 (Digging through the earth, digging through the moon)
- Top right: 고추잎, 쌈자잎, 옥수수줄기까 (Chili leaves, radish leaves, corn stalks)
- Middle left: 성로 터어를 란다 (Breaks the path)
- Middle center: 재생지 (Regeneration site)
- Middle right: 골짜기 (Gorge)
- Bottom left: 생분해성비닐 (Biodegradable plastic)
- Bottom center: 육수전부 (Jellyfish)
- Bottom right: 가짜 (Fake)
- Left side: 간조 (Tidal flat)
- Center: 동이 (Dongi)

A hand-drawn diagram of a heart in brown ink. The top chamber is labeled '수문' (atrium) and the bottom chamber is labeled '비' (ventricle). The left side shows the '관리' (mitral valve) between the atrium and ventricle, and the '유설' (aortic valve) leading out from the ventricle. The right side shows the '윤온' (pulmonary veins) entering the atrium and the '저우기' (pulmonary artery) leading away from the ventricle. The bottom part of the heart is labeled '두경밀로' (atrioventricular groove).

2021. 5. 21. 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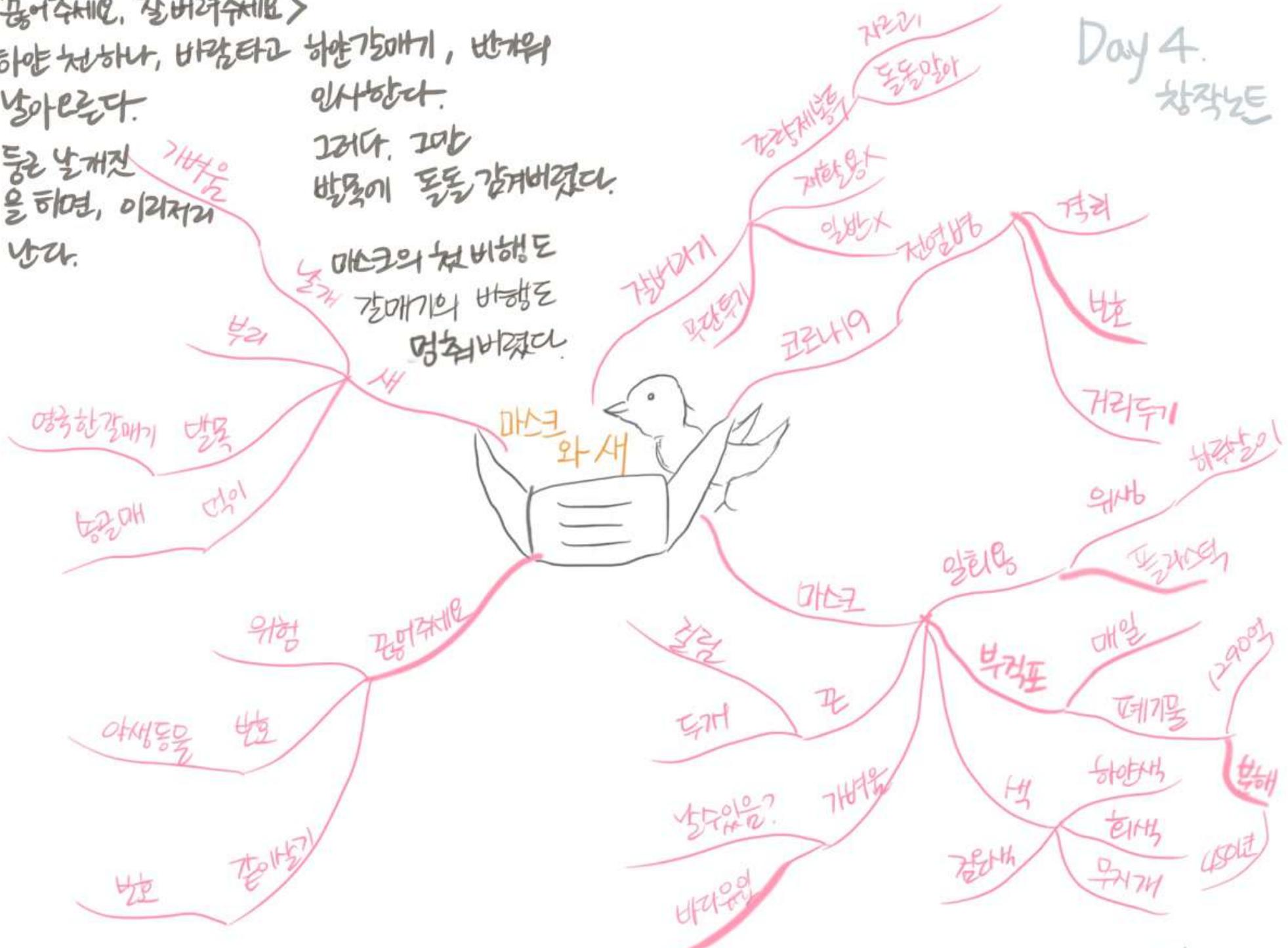
〈꽃어주세요, 잘 버려주세요〉

하얀 천하나, 바람타고 하얀 기도기, 반기위
날아온다. 인사한다.

등을 날개진
을 하면, 이리저리
날다.

인사합니다.

그러다. 그만
발목에 돌을 깊게비겼다.



Day 4.

2021. 5. 21. BR

Day 5 창작노트



〈탄소의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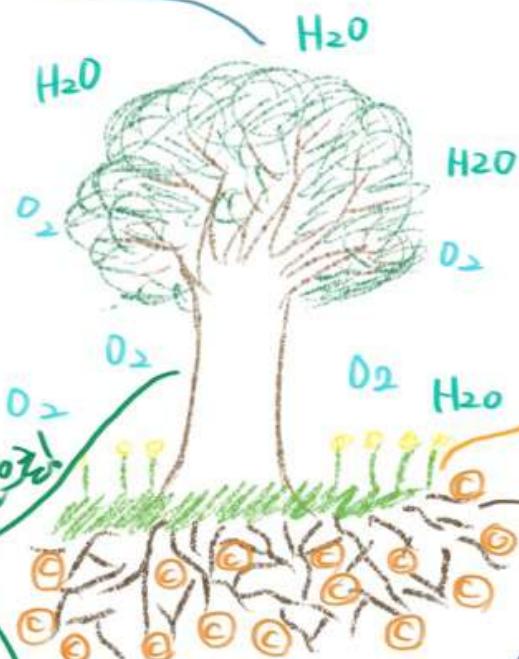
난 집이 좋은데 말아요.

땅에서 태어났는데 흙먼지가 되어 사라졌어요.

난 잡이 좋은데 말이죠

내가 이제 그려보는데 장들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니. 떠나가 들어온



→ ② 토끼가 뛰어온 바다길이

땅으로 돌아가서
잘들고 싶어요.

제 129 기호악당이 아니라

장꾸러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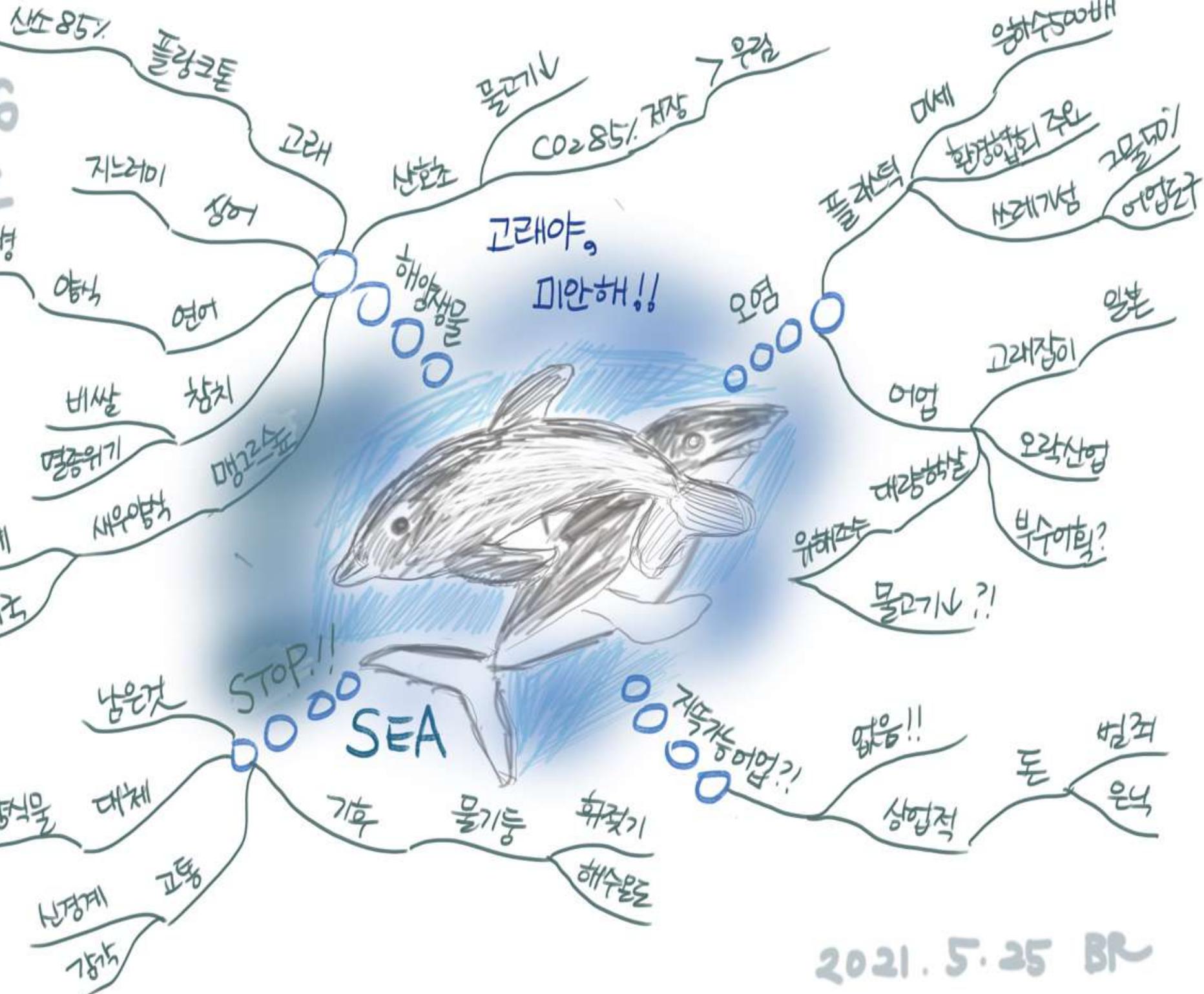
파종

- 갈기
- 재해
- 면지
- 침식
- 살충제
- 독성
- 미생물
- 대기온도
- 전쟁
- 농생산

2021.05.24 BR

Day-6 창작노트

전영병



2021. 5. 25 BR

Day 8 - 창작노트

A hand-drawn illustration of a gourd plant with various stages of growth and associated Korean sayings. The plant features large green leaves, a yellow flower, and a long green gourd. Orange speech bubbles and labels describe different phases of the plant's life:

- Top left: "정글정" (Jeongglejung), "기둥 위에 줄을 묶는다" (Ties a knot on a pillar), "여기서 저기 위에서 아래" (From here to there, from top to bottom).
- Middle left: "등반기" (Dongbanguk).
- Bottom left: "지그재그 묶다 보면 호박넝쿨이 기어온다" (If you tie it zig-zag, a gourd vine will climb on), "한창을 기어온다가" (Climbing in full bloom).
- Top right: "이제는 마땅히 기끼까지" (Now even moss), "이제는 벙고르 둘기까지" (Now even Bonggor), "수미이외" (Only a mosquito), "7-8월" (July-August), "나비" (Butterfly).
- Bottom right: "성소" (Nursery), "줄기가 약남" (Weak stem), "가기다님" (Waiting for someone), "해변" (Beach), "정글포" (Forest).

해가 져도 내려울을
모른다.

왜그걸지 너는 알지?
점줄침이 얼마나 모룩
재미있는지 말이야!

성장

- 인생
- 환경
- 기술
- 문화
- 인물
- 자연

나

주제

2021. 6. 11 BR



완료

2021년 6월 25일 오후 12:22

창작노트을 마치며 (시인, 김보람)

창작은 수집과 생각의 연결, 그 틈사이에
피어나는 들장미 같은 것이 아닐까.
뿌리에서 줄기로 그리고 잎 사이로 피어나는 장미들이
오유월 담벼락같은 창작노트에 가득 얼굴을 내 밀었다.
주로 찰나의 감각, 영감에 의존하여 시를 썼던 것과 달리,
창작 노트에 정보를 수집하고, 생각을 연결하는 과정을 기록해보니
창작자의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8개의 창작노트를 썼다. 맵핑을 이용하여, 연결에 연결을 더하고
끝에 짧은 문장을 끼적였다.
지구적인 관점을 얻기 위해, 내 주변의 자연을 탐색하고 질문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는 것,
배경이 아닌 주체로서 바라보는 힘이 생겨났다.
내 생각과 내 시는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이제는 당신에게 물어볼 차례이다.
우리 같이 지구를 구해보지 않겠냐고.

내 맵핑의 끝은 항상 열려있다.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다.|



Aa

